

겨울 시베리아 횡단열차타고 바이칼 기행 8일

정태인 문학박사(오스카바국립대학교)와 함께하는 겨울기행

1차 2월 5일(월)~12일(월)
2차 2월 20일(화)~27일(화)

블라디보스토크, 바이칼, 알훈섬, 이르쿠츠크 문의: 02-730-2270

역사를 품은 맥주 vs 디자인 뽐낸 맥주

눈길 사로잡는 이색 수입맥주들

다양한 수입맥주들이 대거 수입되고 대형마트까지 유통망을 확대하면서 맥주 고르는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 현재 수입되고 있는 맥주만 약 500여종에 이르고, 올해 9월까지 맥주 수입액은 사상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해 전년대비 약 50% 이상 성장했다. 경쟁이 치열한 수입맥주 시장에서 브랜드만의 독특한 역사와 디자인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색 맥주들을 살펴봤다.



'레페'는 1240년 성 노버트 성당의 수도사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양조되기 시작한 애비맥주다. 레페 전용잔인 '고블릿'은 예수가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했던 성배 모양을 본 떠 만들었다.

800년 전통 벨기에 수도원의 대표 맥주 170년 역사 자랑하는 덴마크 왕실 맥주

예수의 마지막 만찬 성배 본 뜬 전용잔 에스토니아 수도 지키는 중세탑 닮은 병

● 벨기에 수도원 대표 맥주 '레페'

800년 전통의 벨기에 수도원 대표 맥주 '레페(Leffe)'는 1240년 성 노버트 성당의 수도사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양조되기 시작한 애비맥주다. 애비맥주만 수도원 방식으로 양조해 판매되는 맥주를 일컫는다. 레페의 로고와 전용잔만 봐도 수도원 맥주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브랜

드 로고는 스테인글라스 사이로 보이는 레페 수도원을 형상화 했다. 레페 전용잔인 '고블릿(goblet)'은 예수가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했던 성배 모양을 본 떠 만들었다. 국내에서는 쓸쓸한 끝 맛이 부드럽게 감도는 '레페 블론드'와 구운 맥아의 은은한 향과 달콤함이 어우러진 흑맥주 '레페 브라운' 2종이 출시됐다.



이다. 비루는 '아름다운 맥주'라 불릴 만큼 독특한 병 디자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제품의 특징인 팔각형 병 디자인은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을 지키는 중세탑 모양을 본 떠 제작했다. 전용잔 역시 우뚝 솟은 피라미드형의 팔각형 디자인을 적용해 견고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에스토니아 전통 맥주임을 강조했다.

● 에스토니아 라거 맥주 '비루'

에스토니아 라거 맥주 '비루(Viru)'는 전통적인 에스토니아만의 양조법으로 제조된 펄스너 스타일의 맥주로 강한 홉과 은은한 바닐라향, 청량한 탄산감과 적당한 목직함이 매력적

● 네덜란드 프리미엄 라거 맥주 '그롤쉬'

네덜란드 프리미엄 맥주 '그롤쉬(Grolsch)'는 옅은 황금색으로 띄며 적당한 탄산을 머금어



가벼운 바디감을 내는 페일 라거다. 8주간의 자연숙성 과정을 통해 구수한 맛과 독특한 풍미를 자랑한다. 그롤쉬는 지난 1월 브랜드 철학을 강조한 새로운 패키지를 출시했다. 기존의 단조로운 녹색 컬러에서 벗어나 화이트와 그린 컬러를 메인으로 청량한 느낌을 더했다. 또한 브랜드 로고와 헤리티지 마크를 보다 심플하게 다듬었으며, 붉은색 마크로 브랜드 철학인 참신함을 담아냈다. 또한 세계 최초 스윙탑(Swingtop) 디자인을 적용해 두 가지 흡을 사용하는 그롤쉬만의 독특한 특징을 아이콘으로 형상화했다.

●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 '칼스버그'

1847년 덴마크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칼스버그(Carlsberg)'는 170년의 깊은 역사를 자랑한다. 100% 프리미엄 몰트 맥주로 가벼운 바디감의 라거 제품이다. 고유 맛과 향으로 덴마크 왕실의 공식 맥주로 지정된 만큼 병 하단에서부터 시작하는 큼직한 'Carlsberg' 양자 로고를 통해 브랜드 헤리티지를 잘 드러냈다. 전용잔 또한 볼록한 모양의 일반적인 라거 맥주잔과 달리 축구경기 승리팀에게 수여하는 트로피 모양을 닮아 '트로피 글라스'라 불린다. 웅장한 크기와 묵직한 그림감, 잔 윗부분으로 갈수록 유려하게 올라가는 곡선 등이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로서의 위상을 나타낸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롤★스타들의 전쟁...LA가 들썩인다

글로벌 인기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의 전설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한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2017 LoL 올스타전'이 7일(현지 시간) 북미 지역 LoL 정규 리그(NA LCS) 경기장으로 사용 중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의 'NA LCS 스튜디오'에서 개막한다. 대회는 10일까지 총 4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올스타전은 전 세계 지역별 인기 선수들이 모여 경쟁하는 e스포츠 축제다. 지난 2013년 첫 대회 개최 후 진행 방식에 변화를 주며 매년 전세계 LoL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역시 예년과 달리 진행 방식에 변화

를 줘 흥미진진한 대회를 예고했다. 무엇보다 흥미 위주의 게임 모드로 구성됐던 예년 대회들과 달리 '지역 대항전'과 '1대1 토너먼트' 등 중독적인 선수들 간 치열한 자존심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지역 대항전은 각 지역별 투표로 선정된 5인의 드림팀이 4개팀씩 2개조로 나뉘어 풀리그를 진행한다. 각 조별 상위 2개팀은 준결승에 진출해 3전 2선승제로 대결한다. 결승에선 5전 3선승제로 올스타전 우승을 두고 물러날 수 없는 정면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대진표를 보면 A조에는 LCK(한국), LMS(대만·홍콩·마카오), EU LCS(유럽), TCL(터키)

리그오브레전드 올스타전 7일 개막 이상혁·김종인, 1대1 토너먼트 출전

올스타 팀이, B조에는 NA LCS, GPL(동남아시아), CBLol(브라질), LPL(중국)이 속했다. 선수 개인의 실력을 겨루는 1대1 토너먼트는 올해에도 팬들의 최고 관심사다. 전세계 최강 선수들 간의 자존심 대결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별 2명의 출전 선수는 코치가 직접 선정하는데, 한국에선 '페이커' 이상혁과 '프레이' 김종인이 참가한다. 올해 올스타전에는 이상혁과 김종인 외에 한국에서 '큐베' 이성진, '엠비션' 강찬용, '고릴라' 강병현이 출전한다. 실력은 물론 인지도도 높은 선수들이어서 전세계 팬들의 큰



전세계 '리그오브레전드' 스타 플레이어들이 7일 미국 LA에서 개막하는 올스타전에서 격돌한다. 사진은 지난해 스페인에서 열린 올스타전. 사진제공: 라이엇게임즈

관심을 받고 있다. 올스타전에서 선수단을 이끌 감독은 각 지역별 프로 선수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됐는데, 한국팀 감독으로 한상용 진에어 그린윙스 감독이 선발돼 선수들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아차 '레이' 디자인 바꿨어요

렌더링 공개...6년 만에 신차급 변경

기아차 레이가 6년 만에 디자인을 바꾼다. 기아차는 6일 2011년 출시 이후 처음으로 디자인을 변경한 레이 상품성 개선모델의 렌더링(사진)을 공개했다. 신차급으로 디자인을 변경한 새로운 레이에는 기존의 젊고 유니크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모던하게 바뀐 외형에 와이드 허니콤 패턴으로 독특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모델의 중앙에 있던 라디에이터 그릴을 헤드램프와 같은 높이로 올리고, 바디와 동일한 컬러로 바꿔 산뜻하고 깔끔한 인상을 부여했다. 단색의 그릴에는 엠블럼을 중심으로 와이드 허니콤(벌집모양) 패턴의 음각 조형을 배



치해 레이의 유니크함을 더시켰다. 또한 프론트 범퍼 양 끝단에 위치한 포그램프를 세로로 배치해 전면부에 변화를 주며 시선을 유도했다. 후면부는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하면서도 전면부의 디자인 요소들을 동일하게 활용해 앞모습과 뒷모습의 일체감을 부여했다. 기아차는 상품성을 개선한 새로운 디자인의 레이 이변 이번 달 중고객들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차음료 '블랙보리', 삼각김밥·도시락 공합 OK

하이트진로, 차음료 시장진출 본격화

하이트진로음료가 최상급 보리 품종인 검정보리로 만든 차음료 '블랙보리'(사진)를 출시하며 국내 차(茶)음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6일 밝혔다. 신제품 '블랙보리'는 국내 최초로 100% 국내산 검정보리를 사용한 무색소, 무카페인, 무설탕의 보리차 음료다. 이노 작용이 없는 보리차 특성상 체내 수분 보충과 갈증 해소에 뛰어나 어디서든 편하게 즐길 수 있다. '블랙보리'는 볶은 검정보리를 단일 추출하는 공법을 통해 잡미와 쓴맛을 최소화하고 보리의 깊고 진한 맛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꿀 맛이 깔끔해 삼각김밥이나 도시락과 합



께 곁들이기 좋고 후식 음료로도 제격이라는 것이 업체측 설명이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검정보리 특유의 진하고 깔끔한 맛을 살린 '블랙보리'로 기존 보리차 시장 공략은 물론, 이노작용이 있는 옥수수수염차, 햇개차 등 주요 차음료 수요층까지 흡수해나갈겠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음료 조운호 대표이사는 "전통 보리송늬의 맛을 구현하고 신제품 검정보리로 품질을 높인 제품 특장점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성장중인 국내 차음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인터넷 해지 거부" LGU+·SKB에 역대 과징금

인터넷 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미룬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역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이용계약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한 통신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의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LG유플러스는

8억원, 중대성이 덜한 위반행위를 한 SK브로드밴드는 1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가 적은 SK텔레콤과 KT에는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방통위 조사결과 통신 4사는 해지업무를 자회사 또는 용역업체인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상담매뉴얼, 해지방안 목

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목표 설정과 성과급 차별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해지접수된 이용자에게 해지철회 또는 계약정정을 유도하는 2차 해지방안조치를 별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근 기자

한 눈으로 보는 경제 6일

코스피지수	2474.37	↓	-35.75
코스닥지수	768.39	↓	-5.73
日 닛케이 지수	2만2177.04	↓	-445.34
중 상하이 종합	3293.97	↓	-9.71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09	↑	+0.01
환율 (원·달러)	1093.50	↑	+5.5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4582.14	↓	-25.21

오늘의 얼굴

BMW코리아 김효준 사장, 회장 승진



BMW코리아 김효준 사장(사진)이 내년 1월 회장으로 승진한다. 수입차 한국법인인 이 회장직을 두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취임 5년으로 는 한상용 현 BMW팔레시아 법인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BMW 본사는 2000년 9월 사장으로 취임해 17년간 BMW코리아를 이끌어 온 김효준 사장을 회장으로 승진시키는 인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회장직을 수행하며 그룹사 전체 사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BMW코리아는 "오 히려 김효준 사장이 보여준 성과를 독일 본사에서 인정한 인사이며, 202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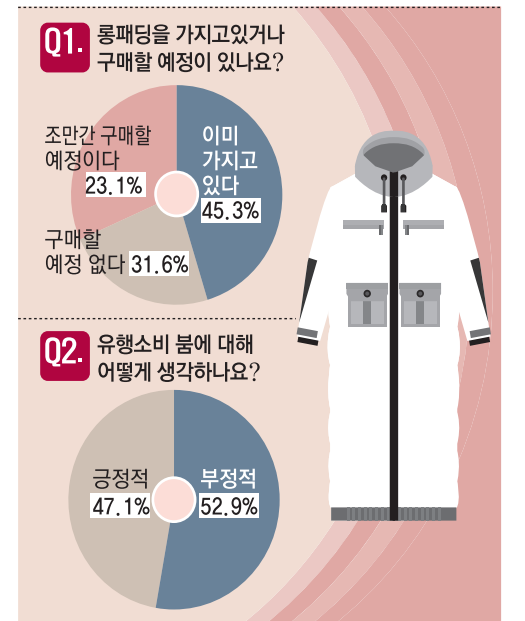
비즈 TALK TALK

- "조세회피처 지정,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6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 "금리 인상은 이른 판단...오 히려 금리 인하할 여지도 충분"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6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시기상조였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 "한국 제품이 사드 갈등으로 멀어진 중국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6일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중국 내 한국 소비재 인지도 조사' 보고서에서)

데이터 경제

통패딩 열풍에 1020세대 45% "이미 구매"

1020세대 10명 중 절반 이상은 유행 소비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구입·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4일까지 전국 1020세대 3897명을 대상으로 '통패딩 유행 소비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020세대 응답자의 45.3%가 이미 통패딩을 구매했거나, 조만간 구매 할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23.1%나 됐다. 통패딩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보온성(59.4%)과 편리성(32.8%)을 꼽았다. 기능적인 이유 외에는 '업오면 유행에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서(5.9%)',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모델이어서(1.2%)', '업오면 무리에서 따돌림 당할까봐(0.8%)' 등의 답변이 있었다.



편집 | 이수진 기자